

화순 행정 신뢰·투명성 높인다

청렴 정착 원년 선포...31개 고강도 시책 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 적용...전 직원 서약도

화순군이 올해를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공사 관리·감독과 인허가, 보조금 사업, 재·세정 등 대외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업무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업무 현장

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장과 감사팀이 협의해 정비한다. 화순군은 청렴 시책으로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보고회 ▲청렴도 우수기관 멘토링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명예 감사관 운영, 부실공사 방지 명예 감독관, 정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각종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금품수수과 음식 대접, 교통편의 등 관행적인 항목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부패 공직자 퇴출제 시행 및 징벌제 제재 강화 ▲5대 비위 근절 대책 강화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 실시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16개 단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한 번이라도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상담장구도 상시 운영한다. 화순군은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구충곤 군수와 최형열 부군수가 앞장서 청렴서약을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최근 군청 집무실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이에 앞서 군은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와 '청렴한 조직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잇따라 열고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구충곤 군수는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담양 전 주민 안전보험 가입
농기계 사고 등 11개 항목

앞으로 담양 주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해·재난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담양군은 27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민안전보험은 담양군에서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주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된다.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농기계 사고 등 총 11개 항목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 안전보험 가입이 예상하지 못한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양군 홈페이지, 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홍보물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영광군은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 8명과 멘토 멘티 결연을 맺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했다. /영광군 제공

"대학생 누나들과 공부해서 좋아요"

영광 드림스타트, 초등 기초학습 멘토링 눈길

멘 영광군은 최근 '기초학습 및 독서 멘토링'을 주제로 드림스타트 학습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학습지원은 드림스타트 대상자 초등 1-4학년 스마트폰 중독·학습부진 아동 8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맞춤형 초등 기초학습을 제공했다.

멘토링 학습지원에 참여한 한 아동은 "방학동안 심심했는데 드림스타트에 놀러와서 책도 읽고 대학생 누나들과 공부도 해서 좋다"고 말했다. 멘토링 학습지원에 참여한 대학생은 "아동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시간이 됐다"며 "아이들과 함

께 뜻깊은 방학을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27일 "방학 동안 아동들이 부족한 기초학습 및 독서 지도 등을 통해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미래의 다양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장흥 축산농가 '초유은행' 송아지 질병예방 큰 도움

지난해 이용률 60% 증가

장흥군이 운영중인 '초유은행'을 찾는 축산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문을 연 초유은행은 축산농가에 송아지 초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우는 초유를 비롯한 젖 분비량이 적어 조산이나 어미소가 수유를 거부할 경우 인위적으로 초유를 공급해야 한다. 초유는 송아지 설사와 감염증 예방에 중요한 면역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송아지의 질병 저항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 폐사율을 낮춘다. 장흥군축산사업소가 운영중인 초유

은행은 젖소의 남은 초유를 살균·가공해 한우농가에 공급,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2018년 대비 2019년 이용률은 60% 증가해 총 1,200여 농가에 4,800여 병을 공급했다. 오는 2월부터는 농축산업 무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산사업소 사무실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층으로 이전, 초유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호 장흥군 축산사업소장은 27일 "초유은행 운영으로 판매 송아지의 질병 예방과 성장률 향상으로 한우농가 경영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며 "지역 전체 한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환대비

나주시 청사에 신고센터 운영

나주시는 27일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던 것을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나주시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된다. 인터넷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이

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나주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시 청사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성 삼서면 이장협 백미 기증

장성군 삼서면 이장협회의는 최근 20kg 백미 40포를 지역 경로당 37개소와 경로당 없는 마을 3곳에 기증했다. 삼서면 이장협회의는 2014년부터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백미를 기부해오고 있다. 삼서면 이장협회의의 쌀 기증은 이장들이 회비를 직접 모아 쌀을 구입한 것

으로 알려졌다. 나병국 삼서면 이장협회의장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여가생활을 보내는 보금자리인 경로당에 쌀을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사순평 삼서면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쌀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 재향군인회, 안보관 확립 다짐

장흥군 재향군인회는 최근 안보회관에서 지역기관단체장과 향군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행촌장학회의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에서 향군회원들은 지역사회 공익증진과 전후세대들의 안보관 및 국가관 확립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김재은 회장은 "올해도 향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군건한 안보관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 재향군인회는 1952년 11월 발족해 현재 3,700여명의 회원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사)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정기총회

(사)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는 최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고철 모시기 행사 등 지난해 주요사업결과를 결산하고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들을 논의했다. 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회원들 간 자유토론방식으로 농정발전 간담회를 열

고 지역 브랜드 쌀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미질경진대회에서 밭맛 최고 품종으로 선정된 '새창무'는 올해부터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임재문 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은 "올해도 주요농정시책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